

## 사회

올림픽 경기 시청... 학교선 '꾸벅꾸벅'

## 高3 진학지도 골머리

## 축구 등 주로 새벽 열려

## 잠 못자 공부·건강 비상

광주 지역 고교 3년생인 박모(17)군은 요즘 방과후 수업시간에 즐다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일 이 잦다. 시차 때문에 꼬두새벽에 방송되는 런던올림픽 주요 경기를 시청하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8일 아침에도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의 준결승 중계를 지켜보느라 친진 몸으로 등교했다.

우리 대표팀이 패배하는 바람에 짐짓한 상태에서 피로감까지 겹쳐 공부능률도 크게 떨어졌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올림픽 경기 시청의 유혹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고교생들의 건강 관리와 생활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능시험을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고3 수험생의 경우, 이렇게 한 번 깨진 생활리듬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더욱이 런던올림픽은 잊은 오심 등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역할을 경기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감성적인 청소년들이 이를바 '멘붕'(멘탈 붕괴) 사태를 호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고3인 정도(18)군은 "요즘 올림픽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기 일쑤"라며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순간의 유혹을 벗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기술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재수생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숙사 학생들은 "사감 선생님 몰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 결과를 보다가 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아이들이 밤새 올림픽을 시청하는 바람에 학교 수업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다"며 "낮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기사와 전날 영상을 보느라 한눈을 파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무조건 올림픽 경기 시청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 시간을 정해 시청하게 하고, 생활 계획표 짐작과 디자인프로그램 등을 통해 헉헉 뛰는 생활리듬을 회복하게 해야한다"고 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뇌물 교육공무원 무더기 실형

## 광주지법, 뇌물 추징도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받은 뇌물을 모두 추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8일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3) 전 광주 동부교육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4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부이사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윤도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와 전 초등학교 교장 이모씨 등 전 교장 3명은 자신들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 시설 보수 공사의 수의계약 대가로 900만

원에서 1700만원을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1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모 건설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동부교육장인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2009년 2월까지 모 학교 교장과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 20건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0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모 전 동부 교육장에 대해 이미 파면조치했으며, 이모 부이사관과 윤도 사무관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저수율 62%로 뚝 떨어져

19일간 폭염 특보가 이어진 전남지역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농축산분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농작물 12㏊와 가축 13만9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 문내면 신홍리 헐도 간척지 박모씨의 논 5㏊에 심어진 벼가 최근

박씨는 가뭄으로 제때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모를 심었지만 이후 35℃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는 인근의 둑방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은 둑방이 폭염에 달궈져 벼가 녹아버린 것이다.

박씨는 "10년째 헐도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피해는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가뭄으로 어린 모가고사해 벼농사 피해 면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은 축산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 육산리 등지의 농가 8곳에서 백 2만5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8일 현재 영광 9곳 6만9600마리, 함평 5곳 4만마리, 보성 2곳 3500마리, 신안 1곳 15마리의 닭, 오리, 꽈지, 한우가 폐사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과일도 성장이 더디거나 가뭄 피해가 예상된다. 포도를 비롯해 복숭아, 사과 등 재벌을 앞둔 과일도 수분 부족으로 과육의 성장 등이 저해되고 품질이 나빠지는 등 주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스프링쿨러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비닐하우스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대비 농작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폭염으로 저수지도 말라가고 있다. 전남지역 3224곳의 저수율은 62.5%로 지난해에 비해 17%포인트나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사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농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적절하게 물을 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30대 女 아이 안고 투신

지난 7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사는 A(여·36)씨가 자신의 8살 아들을 안고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자고 있던 아들을 안고 뛰어내린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억 시기' 조폭, 30만원 빼앗다 덜미

○서울 송파경찰서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강탈한 혐의(강도)로 '광주총장OB' 조직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려조선이 목포 소재 업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돈을 받고, 정치권의 누가 타깃이 되는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관측선 납품업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으며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120억대 기상관측선 납품 로비의혹 수사

## 檢, 목포 고려조선·기상청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전남지역 한 중소 조선업체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기상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8일 목포 소재 조선업체 고려조선과 이 회사 대표 전모씨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려중공업 등 관계사 3~4곳을 전날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상청 본 청 해양기상과 사무실, 기상청 전 고

위간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려조선 경영진이 선박을 납품하면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고려조선이 지난 2009년 기상청과 119억원에 계약해 국내 최초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조선이 관측선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아서 당시 기상청장 J씨 등

고위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고려조선은 2010년 가을까지 관측선을 납품하도록 계약했으나 기일을 맞추지 못해 16억6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기상청은 고려조선이 이를 내지 않자 고려조선에 지급해야 할 16억9000만원 상당의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상금은 일정 계산법에 따라 부과하게 돼 있고, 면제를 해주더라도 심사요건이 있는데 기상청 간부가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고려조선

/연합뉴스



#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 교재무료 배부
- 셔틀버스 운행

• 2012년 7월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 062-951-5100